



## 2023년 하반기 수원시 경제 전망

### 요약

#### □ 경제 전망

- 대내·외 상황은 2020년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2021년 역기저 영향으로 2022년 및 올해 성장률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실물 경제분야는 회복 추이 이어갈 전망
- 하반기 수원시 경제는 고용시장 개선, 소득 증가, 비대면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 등 내수 활성화 추세 강화 전망
- **(물가)** 유가 및 농산물 분야 중심으로 하락 추세. 축산물 분야 등락 있으나 고물가 추이 여전. 장마철 이후 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
- **(부동산·건설)** 주택 거래는 올 상반기부터 소폭 상승세로 전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 추세에서 진정국면 돌입 주택 및 건설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 **(금융시장)** 전반적인 개선세 보일 전망이나 금리정책 방향, 산업별 투자 전망에 따라 불안정한 움직임 예상
- **(수원시 재정)** 삼성전자 법인소득세가 다소 축소되긴 하였으나 소비회복, 개인소득 증가, 개발입주 등으로 2022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상반기 삼성전자 영업부진 영향으로 2024년 수원시 총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1,000~1,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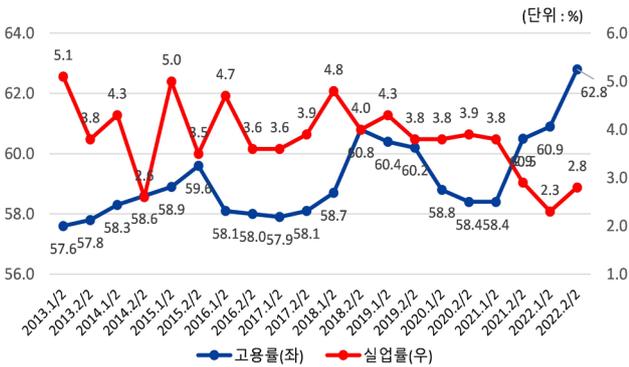
- 안정적인 재정 자립도 기반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 유치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반도체 분야 침체 시 재정악화, 변동성에 직면하는 취약 구조 개선 노력  
⇒ 바이오, 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성 확보 방안 고려한 방향성 필요
- 삼성전자의 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지역적 차원의 관리 필요  
⇒ 수원 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전담 담당자 지정 등 수원시의 지원의지 피력 및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재정의 순세계잉여금 추이, 예·결산 검토로 연내 예산의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  
⇒ 최근 5년 평균 3,0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결산현황 및 예산 검토 체계화
-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지속 사업을 검토하고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 사고재해 예방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안전 점검 및 지원 필요

# [1] 내수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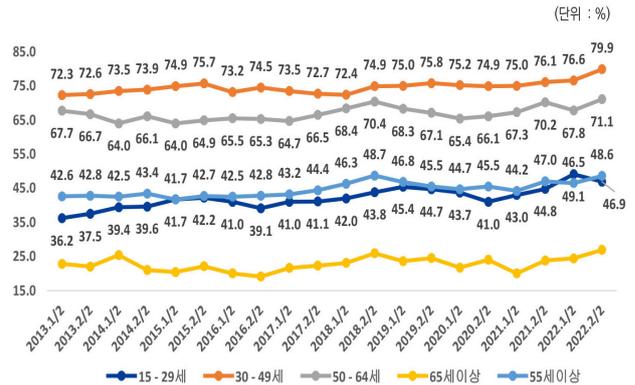
## □ 하반기 수원시 경제는 고용시장 개선, 소득 증가, 비대면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 등 내수 활성화 추세 강화 전망

- 고용시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며, 30-49세 고용비율 최대, 15-29세 고용증가 폭 최대치를 보임
  - ⇒ 고용률 추이: '21년 상반기 58.4%에서 하반기 60.5%로 큰 폭 상승 후 상승세 유지('22년 하반기 62.8%)
  - ⇒ 실업률 추이: '22년 상반기 10년래 최저치(2.3%) 기록 후 같은 해 하반기 2.8%로 다소 상승
  - ⇒ 산업별 취업자 추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증가
  -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분야에서 증가세 견인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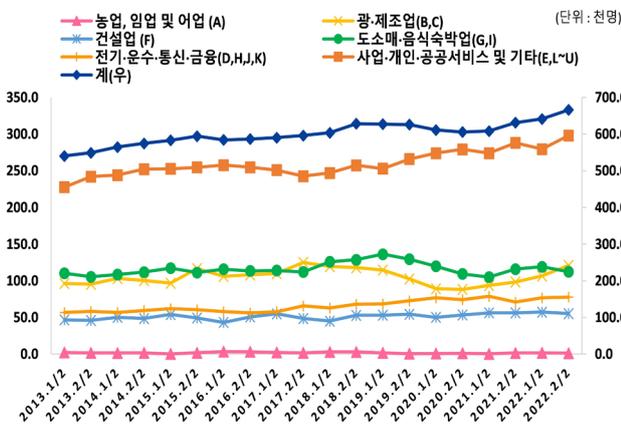


<연령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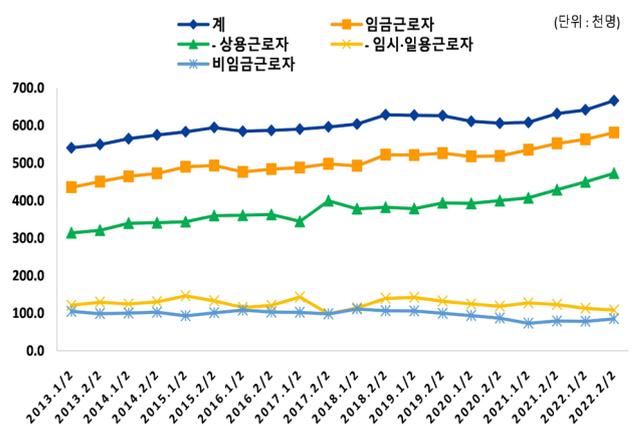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별 취업자 추이>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거주지 기준 현황. 수원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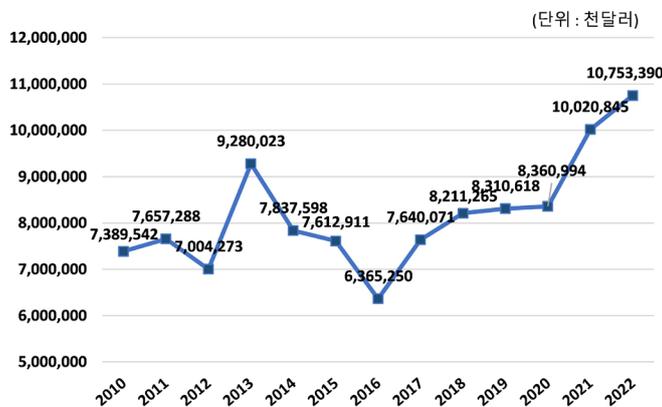
[주 :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포함]

- 전국기준 2023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동기대비 4.7%(실질0.0%) 증가. 소비성향 증가
  - ⇒ 재산소득(18.2%), 근로소득(8.6%), 이전소득(-0.9%), 사업소득(-6.8%) 순
  - ⇒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 평균 소비성향 70.7%로 전년동기대비 5.1%p 상승, 여가수요 증가로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분야 지출 크게 증가, 식료품 지출은 감소(-2.9%)
- \* 전국기준이나 수원시 분야별·직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 및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비대면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추세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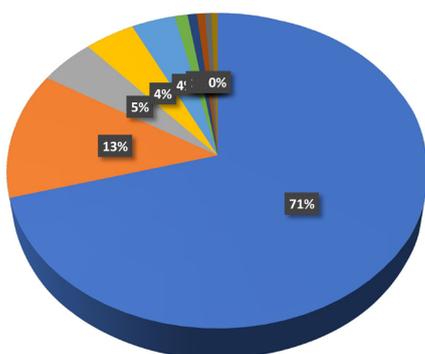
## [2] 수출 상승세 지속 전망

- 수출은 '21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 기준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분야 품목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71%). 상승세 지속 전망
  - 경기권 내 지역별 실적은 화성시 > 평택시 > 이천시 > 용인시 > 수원시 > 성남시 순

<수원시 연도별 수출액 추이>



<2023년 수원시 품목별 수출액 실적>



-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철강
- 철강의 제품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선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자료 : 관세청 수출입 통계

| 주 : 품목별 수출액 실적은 상위 10대 품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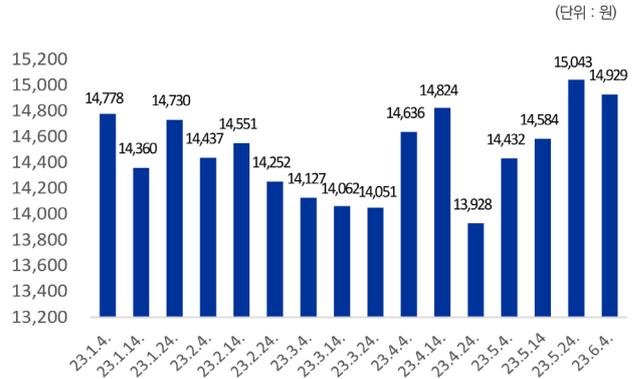
### [3] 분야별 물가 요금

□ 수원시 물가는 유가 및 농산물 분야 중심으로 하락 추세. 축산물 분야 등락 있으나 고물가 추이 여전. 장마철 이후 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

<농산물(8종) 요금 추이>



<축산물(4종) 요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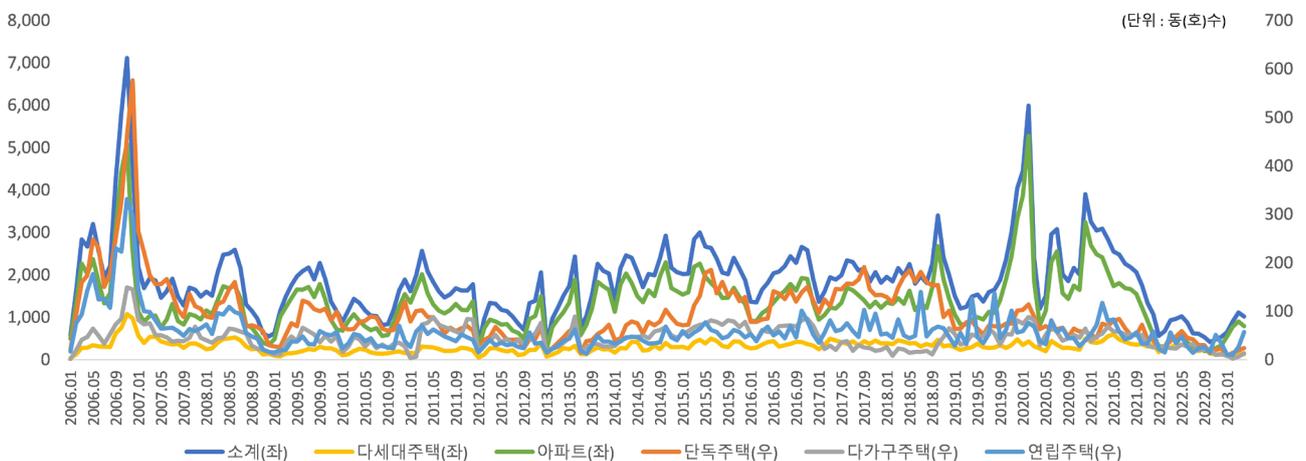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홈페이지]

### [4] 부동산 및 건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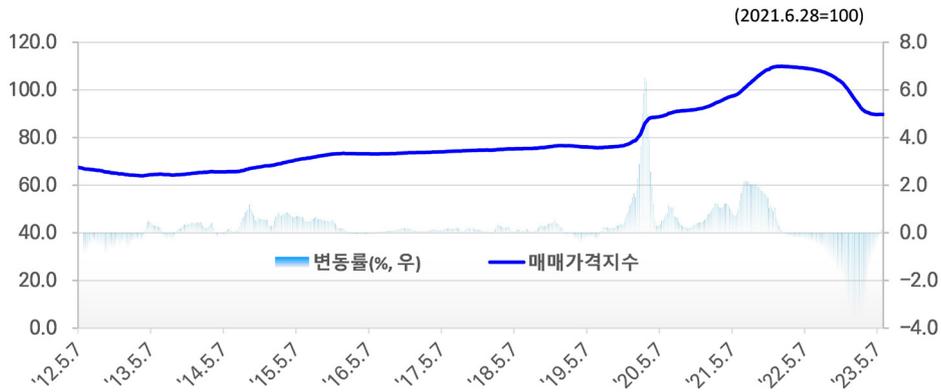
□ 수원시 주택 거래는 하락 추세에서 올 상반기부터 소폭 개선세로 전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하락 추세에서 진정국면 돌입. 주택 및 건설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수원시 주택 거래량, 5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올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 축소되다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수원시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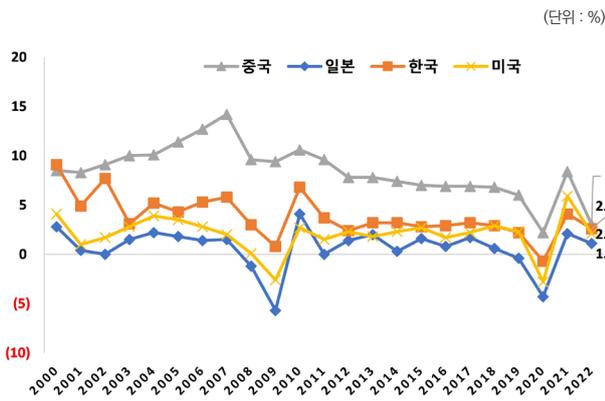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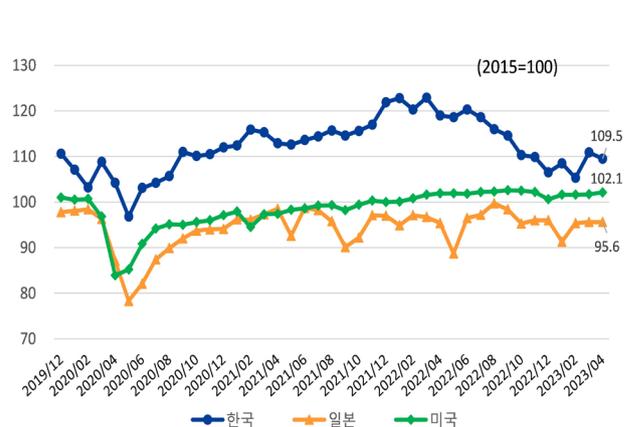
## [5] 경제성장률

- 대내·외 상황은 2020년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2021년 역기저 영향으로 2022년 및 올해 성장률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실물 경제분야는 회복 추이 이어갈 전망
-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나 금리정책 방향, 산업별 투자 전망에 따라 불안정한 움직임 예상
  - 주요국 산업생산은 서비스업분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100 이상으로 낙관적 전망 시사
    - ⇒ 주요국 제조업 생산자관리지수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50 이하로 여전히 부정적(한국 48.1)

<한국 및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주요국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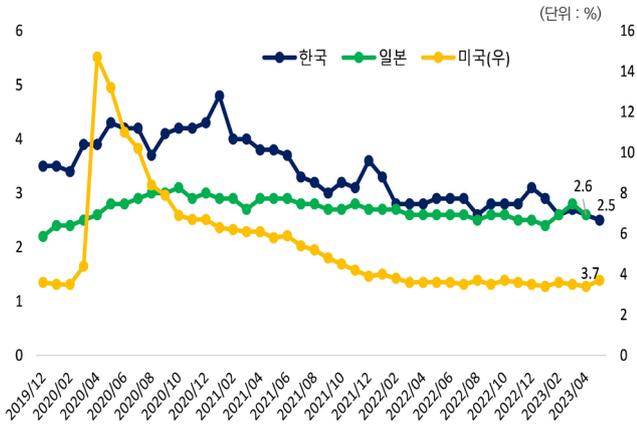
[주 : 산업생산지수는 100 이상인 경우 낙관적, 이하의 경우 부정적 평가. 생산자관리지수(PMI)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경우 낙관적, 이하인 경우 부정적 평가.

[자료: 한국은행]

- 주요국 고용시장은 생산활동 증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및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회복. 소득 회복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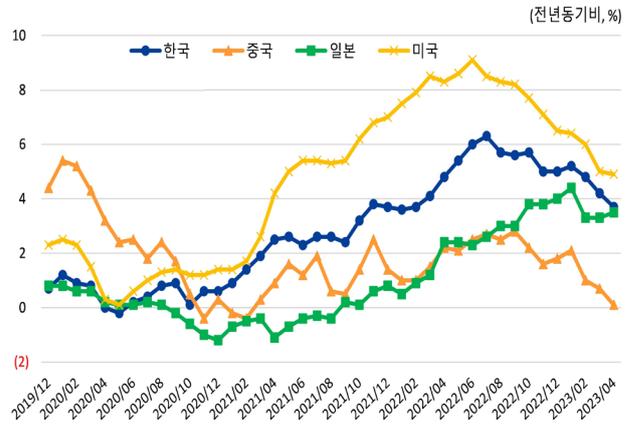
- 글로벌 물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은 물가 안정목표인 2~3%대에 진입. 미국 역시 4%대로 2년래 최저치 도달하였으나 목표대 진입까지 향후 1분기 정도 추가 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 실업률 추이(계절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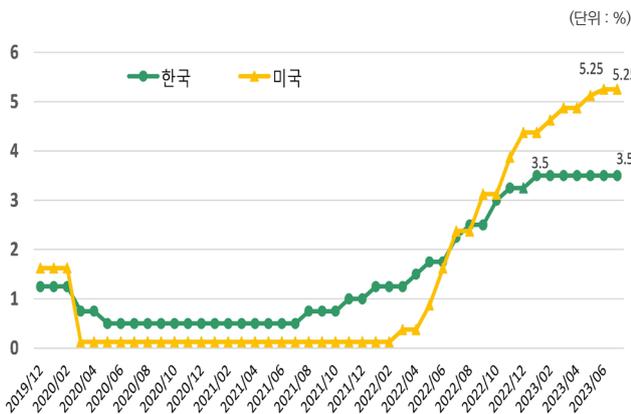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 물가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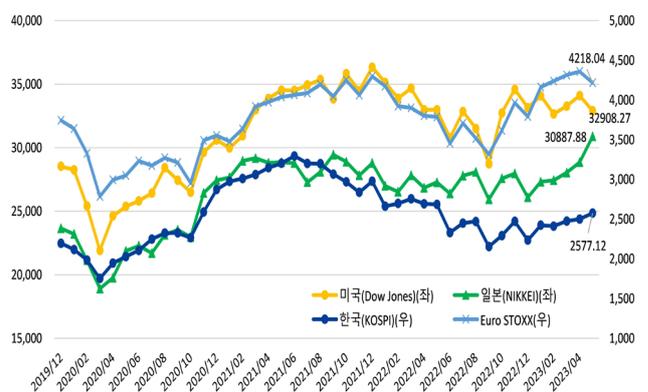
- 국내 기준금리는 생산성 악화 우려, 물가 하향 안정세 등으로 올 1월 이후 3.5%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5.25%)는 물가안정목표에 따라 연내 1~2회 정도 추가 인상 전망. 물가 안정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연내 금리 유지 내년 초 하향 조정으로 전환할 가능성
- 글로벌 주식시장은 산업별 이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금리인하 가능성, 생산성 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회복 추세. 미 통화정책, 대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상황에 따라 변동성 좌우될 전망

<한국 및 미국 기준금리 현황>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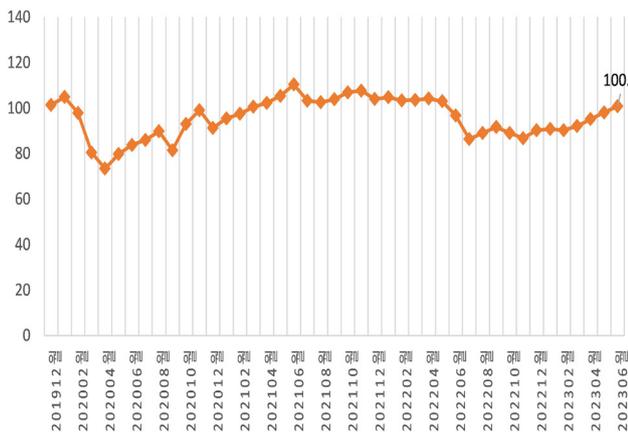


| 주 : 주가지수 한국(KOSPI) 1980.1.4.=100, 미국(Dow Jones) 1896.5.26.=40.96, Euro STOXX 1989.12.29.=1000, 일본(NIKKEI) 1949.5.16.=176.2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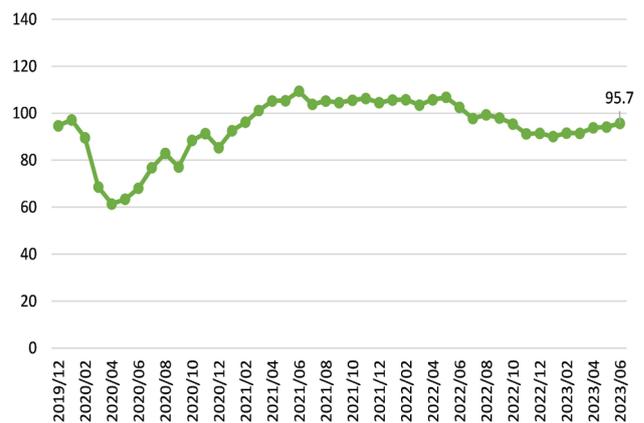
## [6] 소비자 심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 소비자 심리지수(CCSI)<sup>1)</sup>는 6월 기준 100.7로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심리 시사. 전월대비 2.7p 상승. 4개월 연속 회복 추이
- 6월 경제심리지수(ESI)<sup>2)</sup>는 95.7로 부정적 심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월 대비 1.5p 상승. 제조(73) 및 비제조업(77) 경기 부정적 심리 우세

<전국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경제심리지수(ESI 추이)>



주 :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자출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 6개 지수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심리지표. 장기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시사.

자료 : 한국은행

## [7] 수원시 재정 전망

- ① 2023년 하반기 삼성전자 법인 소득세가 다소 축소되긴 하였으나 소비회복, 개인소득 증가, 개발입주 등으로 2022년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② 상반기 삼성전자 영업부진 영향으로 2024년 수원시 총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1,000~1,500 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③ 올해 수원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전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3조 3,800억원 규모로 수원시 지방 세수 악화에 영향이 예상되나 기타 지방세원을 통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④ 다만 2024년 수원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미 1,2분기 합산 9,13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수원시 법인세 수입은 올해 대비 1,000~1,500억원 정도 위축 전망
- 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메모리 감소 결정,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1)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지수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2개분야 소비자동향지수(CSI)로 구성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홈페이지 : [www.suwon.re.kr](http://www.suwon.re.kr)